동아일보 - 1935. 12. 10/ 3면/ 1단

現代思想의 混亂
史的 發展에 對한 無知·歪曲(三)

蘇哲仁

最近 世界 各國에 잇어서는 □□의 歷史 及 現實的□□을 再□할려고 하는 □이 □라고 잇□. 이와 같은 □□은 最近 朝鮮에도 波及되어 □□□□의 歷史 及 그 一□文化□□에 對한 □□을 다시 □□□□고 하는 傾□과 □□□이 □□하다. 그것은 더욱 歷史的 方面에 잇어서 □□하다. ―歷史□과는 다른 □□에서 ―이와 같은 □□과 □□하야 在來의 自由主義的, □□主義的 思想 及 그 傾向은 □□하여 □고 極度의 排他思想이 □□하엿스니 그것은 封建的 □은 □□한 □□主義的 思想의 反□的 □□□이다. 그것은 現實的 □□을 □□□에 잇어서 그 發展性의 必要性 及 □□性을 歪曲하며 或은 一時 部分的 歷史的 事實을 形而上學化하며 觀念化하기 때문에 全體的 必□性을 □□하기 쉽다. 그런 故로 在來의 □□的 神秘的 非合理的 □□을 □□하고 現實에 對한 正當한 分析 卽 □定的 □□□事實에 對한 社會的 經濟的 政治的 關係― 그 發展의 그 必然性을 科學的으로 探求하여야 한다. 여긔에서 再三 注意할 것은 다만 □□한 □□의 □□이 反□的 副□□이 되어서는 아니 되며 다만 □□를 □□하는 自家 撞着에 빠져서는 아니 된다는 것이다. 그것은 過去를 現代에 □□시킬려고 하는 單純한 復古思想에 不過하다. 生産力의 □□과 그 生産□□와의 相互□□가 □□□現代에 잇어서는 亦是 그것을 土臺로 한 科學的 探求가 必要하다. 여긔에서 그 發展의 歷史的 必然性을 把握하며 다시 그 過程에 作用함으로써 在來의 自然的 歷史 發展은 意識的 歷史 發展으로 代□한다.

그럼에도 不拘하고 現實的 過程에 對한 形而上學的 見解 □ 그것을 □□化하는 見解를 가진 者가 不少하다. □氏는 「半島文化의 □□」 中에서 「□□狀態에서 □□하야 새□□와 □□을 □에 □□□□□을 具備한 □□□는 벌서 □□□□ 왓슴에도 不拘하고 元來 □□□□에 不敏한 民衆의 文化 意識은 □□不□한 現狀에 잇는 것은 一□□□이라.」고 하고 그 對象으로는 「□下를 □□

하면서 半島文化의 나아갈 □□와 그것을 □□□□□도 이것을 □下에서 求하기에 努力……」이라고 하엿다. 그 結果 科學, □, □□, □□□□□에 □하야 過去의 □□한 □□과 그 現在에 잇어서의 缺陷과 □□을 □□□으로써 現在에 不□을 自□하엿다. 그러나 그가 □□를 自□하게 된 過程과 그 必然性에 對하야 全然 論하지 아니한 것은 大端한 □□이다. 또 朝鮮사람이 現在가지고 잇는 性品 上 缺點을 論함에 잇어서 一例□□□ □□性 같은 것을 朝鮮사람의 先天的 性品으로 論하엿다. 여기에서 구차히 그것을 辯□할려고 하는 것은 決코 아니다. 다만 그 原因이 잇는 것을 指示하면 그만이다. 그러나 氏는 그것이 封建時代 末期의 □□的 □産物인 同時에 그것이 封建制度 自身을 自滅케 한 要素의 一인 것을 □□하지 못하엿다. 封建的 殘滓가 만히 남어잇는 自由 競爭의 歷史가 日□한 朝鮮의 現實을 自由 競爭의 歷史가 己久한 先進國家에 對□視하는 때에 □한느 □□다. □□의 朝鮮文化 □來 目標는 어디 잇느냐 하는 데 잇어서 그는 □□에 □□하엿스며 그 方法으로는 自然의 □化□ 「半島文化」가 그것이라고 하엿다. 그 □□은 □□及 中國을 □□□□□□라고 하엿다. □□□ 보앗□□□이나 다시 海上 或은 □□□으로 施行한다고 하면 그의 □□한 □□에 □□이 □□□이니 □□스러운 일이다.

文化의 形成은 그러케 □□한 것이 아니엇다. 그 過程이 單純하지 아니하다. 歷史的 □□에 잇어서 이□□□□力과 經濟的 □□□□及 그 □□을 土□로 하야 □□되는 것이다. 半島文化 向上의 目標가 □化에 잇다고 하는 것은 ―아모리 □□에 □□이 만키로나 ―너무나 先進 市民 社會의 發達史에 □□이 아닌가 한다.

이러케 길게 論한 것은 □□□일부러 論評할여고 하는 것 보담도 上述한 바와 같이 最近 歷史的 見解와 그 傾向이 盛行하며 그와 同時에 非科學的 見解가 만키 때문에 一例로 論하엿슴에 不過하다. 歷史를 論하면서 그 結果의 必然性을 歷史 科學的으로 論하지 아니한다. 過去文化의 □□가 現存한 것으로 新□時代의 □□ □□時代의 □□□라고 하면 그것을 今日에 잇어서 □□한다고 하야 朝鮮文化에 新時代가 出現하겟느냐 하는 復古的 思想은 歷史□□□□을 그 本末을 □□한 것이다. 이와 같은 歷史에 잇엇의 科學性을 無視하는 見解는 獨斷的이며 非合理的이며 直觀的이며 或은 □□的이기 때문에 歷史의 發展性을 □□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歷史的 □□性과는 □□□□하게 되기 때문에 그 □□은 □□的 思想으로써 觀念的으로만 □□的 □□□□□하며 그것의 積極性은 思想의 社會的 □□□□□□ 뿐이다.